

# 環境과 建築 (Environment and Buildings)

本原稿는 “環境問題”에 關한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심포지엄의 會議錄과 發表論文 中國際住宅計劃聯盟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ousing and Planning) 이 이를 발행하여 IFHP Bulletin 에 掲載한 것을 國立建設研究所 建築部 建築基準課에서 번역한 것임.

環境의 破壞는 主로 人間의 必要充足과 福利增進에 附屬한 人間의 積極的이고 人爲的인 努力이 動因이 된 派生的 結果인 것이다.

利益追求를 經濟活動의 動機로 삼는 自由企業國家에 있어서도 위의 一般原則이 妥當한 것이 直接的이든, 間接的이든, 他人의 必要를 充足시키지 못하는 經濟活動에서의 利益追求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人口가 增加하고 또다른 經濟的 需要가 增大하여 감에 따라, 이러한 經濟活動은 膨脹을 거듭하게 되어 量質面에서 어느 限界에 到達하게 되면 그것이 環境에 뚜렷한 危害를 주게 된다. 이러한 事實을 科學者나 專門家들은 일찍부터 予見했지만, 一般大衆들은 훨씬 뒤늦게야 知覺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結果로 一般大衆들은 環境破壞의 實質的意味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企業家들은 巨대한 利潤追求를 爲해 科學者들의 予防警告가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이를 回避하거나 默殺하여온 것이다. 結局 一世紀餘에 걸친 自然資源의 濫用과 汚用으로 말미암아 山林은 濫伐되고, 들판은 荒廢해가고, 땅은 파헤쳐지고, 江과 湖水가 汚染되고, 大氣가 有害개스로 汚染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結局 우리의 環境은 特히 産業革命以後 오랜 歲月을 걸쳐 이러한 有害要素들을 받아 들였다가 充分的 報答을 되돌리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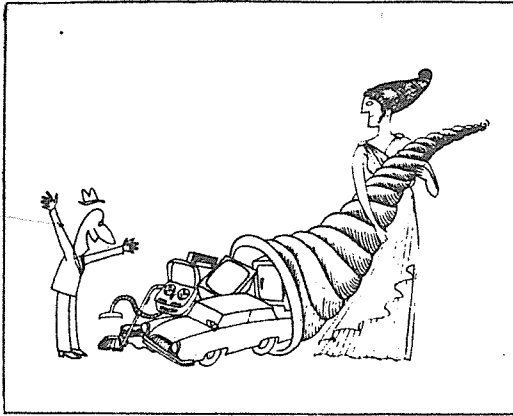
比較的 最近에 이르러서야 科學者들의 研究로 20世紀 初半에 이룩된 技術과 産業의 發展 가운데서도 特히 化學工業의 發達과 內燃機關 導入에 의

한 急激한 産業變革이 主된 役割을 맡아 自然의 內在力만으론 그 有害產物을 消化吸收하거나 中和시킬 수 없을 程度로 環境을 破壞시키고 있다는 事實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大部分의 一般大衆들은 數十年 동안 이러한 科學者들의 思考를 따르지 못한 채로 아직도 單純히 實生活上의 必要때문에 이러한 事實에 鈍滅한 것이다. 더구나 先進工業國家에서의 環境汚染에 對해 關心을 기울일만한 市民들까지도 왕왕 自身들과 그들의 地域社會에 돌아올 目前의 經濟的 利益追求에만 及及하여 環境汚染의 深刻性 따위는 等閑視하는 實情인 것이다.

環境計劃이라 하는 어렵고도 複雜한 問題에 接近하는데는 高度의 技術과 專門性이 要求되기 때문에 大衆들이 비록 環境問題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問題에 對해 主導的으로 參與하기는 困難하다. 國家가 特定狀況에 處할 때 大衆들은 政府의 專門家들이 圓滿한 解決策을 講究하리라고 確信하게 된다. 더구나 社會가 高度로 制度化되고 專門化됨에 따라 專門家들의 見解는 一般人的 常識的 見解와 달라지는 傾向이 있고, 또 一般인들도 專門家들이란 政府機關 밖으로 부터의 一般輿論에 對해서는 冷談할 것이라고 미리 判斷하게 된다.

環境의 破壞에 對處하는데 있어서 政府는 다음과 같은 難關에 逢着하게 된다. 即

經濟成長(特히 後期段階의)과 環境惡化 사이의 密接한 因果關係: 이는 先進工業國이 環境問題에 더 腐心하고 있음을 意味하며, 經濟成長이



란 肯定的 特性과 環境惡化란 否定的 特性을 分離 시켜야 하는 어려운 問題를 던지는 것이다.

1960年代 初期에는 關心의 對象이 主로 長期 經濟展望이었으나 그 末期에는 環境問題로 轉려지게 되었다. 사실 長期展望이라는 것이 옳게 되었

면, 現在의 趨勢가 持續할 境遇, 닥칠 可恐할 狀況에 對해 關心을 두어야 할 必가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한 趨勢는 너무 뿌리가 깊혀 박혀있다.

現在社會는 많은 燃料를 使用하는 에너지에 依存하고 있으며, 經濟가 膨脹하면 할수록 에너지의 需要는 커지는 것이다. 露天炭鉞의 採掘로 因한 地表의 被害는 時間의 흐름에 따라 好轉될 수 있으나, 採油에서 부터 最終 消費段階까지 끊임없이 發生하는 石油類 使用에 依한 汚染은 굉장히 深刻한 것이다. 海上 採油가 急速히 盛行되고 있고, 또 傳統的 產油國과 消費國間의 熾烈한 紛爭은 이러한 海上採油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石油 海上輸送時의 事故나 油槽탱커를 海上에서 洗滌해

은 惡習 때문에 바다가 汚染되고 있다. 大氣는 工場 굴뚝에서도 汚染되지만 自動車, 飛行機의 急增으로 因한 汚染이 가장 深刻한 것이다.

이들은 現代日常生活의 必要不可欠한 交通手段으로 提供되는 것이지만, 上記의 大氣汚染 以外에도 이들로부터 發生하는 騒音과 이들에게 提供되어야 하는 土地가 漸增하는 것도 重要한 問題로 附加되고 있다. 道路와 飛行場이 漸增함에 따라 土地를 蚕食하면서 騒音과 各種 汚染物質을 퍼뜨리고 있다. 西歐 諸國과 같이 比較的 좁은 나라에서는 高速道路 建設에 밀려 山林이 破壞되고 있는 한편, 온 國土는 巨大한 超高速 飛行體의 끊임없는 騒音公害의 위협에 直面하고 있다.

生産過程에 投入되는 수많은 原料는 그와 同等한 量의, 또는 그 以上の 많은 老廢物을 製品出荷 또는 最終消費段階까지에서 放出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大部分은 옛날과 다른없이 主로 下水道를 통해 防出되고 있는데, 問題는 이렇게 處理되는 廢水量이 크게 增大된 것도 問題지만 質的으로 變化를 가져온 것도 크게 深刻한 것이다. 예전엔 原料와 廢棄物質이 모두 有機性이라 別問題가 없었지만, 오늘날엔 대부분이 自然生物界의 힘으로 處理不可能한 無機質 特殊化學 物質이라서 問題가 다르다.

農業部內, 工業生産, 都市消費 모두가 다투어 有害物質을 廢棄시키고 있다. 現代의 農業은 土壤으로부터 쉽게 排水되는 殺虫劑나 化學肥料를 使用하고 있다. 經濟學者들 間에는 農業人口의 急激한 減少를 높이 評價하는 傾向이 있지만, 또 한편 注目해야 할 점은 지금과 같은 農業의 現代化가 곧 水質汚染의 主原因이며, 強力한 機械로 땅을 파 해침으로서 樹木의 棲息처마저 剝脫하고 끝내는 土壤의 肥沃度까지 危脅하고 있다는 점이다. 옛날 프랑스에서는 農夫들을 가르켜 언제나 땅만 밟아 사는 “사람개미”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後孫들을 위해선 언제나 땅에 붙어서 땅을 肥沃하게 保存하며 살아 왔기 때문이었다.

이미 魅力을 喪失한 都市周邊의 환경같은 混雜에 걸려 사람들은 自然의 快適을 渴求하게 되고 社會發展에 따른 生活余裕增大, 交通手段의 動力化 등은 自然의 快適을 즐기는데 좋은 便宜를 提供하게 되었다. 그러나 無分別한 自然으로의 殺

되는 그들이 즐겨야 할 自然을 또다시 망치게 하기도 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環境惡이란 것은 우리가 願하는 財貨나 서비스에 密接한 關聯을 맺고 있어서 結局 이들을 供給하는 生産方式과 이러한 生産方式이 誘導하는 生活樣式과도 關聯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分離시켜 解決해야 함은 거의 臆두도 못낼만큼 至難한 事業인 것이다. 經濟學者들도 人間인 以上 이러한 環境惡을 實感할 것이고, 또 장차 이러한 環境이 增大될 것이 明若觀火한 以上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들도 이러한 問題를 기꺼이 考慮해보고 싶지만 經濟專門家의 立場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을 國家的利益에 適用시키기에는 아주 困難한 問題들이 따르는 것이다.

우리의 經濟的 思考構造는 現實을 分析하는데 어떤 剛一點을 찾아 뭉뚱그리려는 傾向이 있어, 마치 어떤 大乘의 觀點에서 볼 때 事物個體의 變化가 微微한 意味를 갖는 것처럼 現實의 어떤 微細한 特性은 無視해버리게 된다. 이러한 思考方式은 工業化時代 初期에 特히 뚜렷하여 우리가 거처온 發展途上의 歷史的 狀況이 그러한 實証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思考方式이 지금에 와서는 커다란 危險性을 內包하게 되었고, 多角의 分析方式에로의 轉換點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企業經營에 있어서 그 損益計算을 하는데 施設維持費를 考慮치 않고 直接運轉費만으로 끝마쳤다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經濟觀念의 世界的 趨勢가 바로 이러한 式이다. 經濟學者들은 地球는 마치 한번 떠난 길은 永遠히게 자리로 다시 올 수 없는 扁扁한 땅이라는 뜻이 一端 生産者의 손을 거쳐나온 것은 소비자를 거쳐 永遠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다면, 이런 생각은 根本的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안될 때가 到來한 것이다.

環境計定이란 “Sub-System”을 新設, 國家計定 項目에 插入시키자는 提案이 擡頭되었는데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반가운 理由는 그 일의 成功的 遂行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勞力의 過程 속에서 사람들은 그 事業의 意義를 크게 깨달아 Sub-System이란 副題로는 不足함을 느끼게 되는 弘報的인 成果가 더욱 意義깊기 때문이다. 그들은 環境問題가 Economic System의 Sub-System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Economic System을 人間과

自然과의 相關關係에서의 Sub-System으로 看做해야 한다고 認識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이다.

人類가 지금과 같은 生活樣式을 繼續 營為하는 限, 그들 自身의 繁昌을 리롭게 해주는 生態學的 諸條件들이 徐徐히 破壞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科學者들은 이러한 破壞가 무서운 速度로 遂行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러한 科學者들의 深刻한 見解가 그들과 時間觀念을 전혀 달리하는 一般大衆들에게는 誤解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 만일 緊迫한 危險이 곧 닥쳐오리란 警告를 받고 警覺心을 갖고 있다가 歲月이 흐르며 따라 危險은 아직 먼곳에 있다고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警告를 惡夢처럼 흘려버리고 經濟的 負擔을 주는 環境政策에는 다시 消極的 傾向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大衆의 그러한 心理狀態下에서는 政府가 그 巨大한 環境保存政策을 意慾的으로 遂行할 수 있을지가 疑問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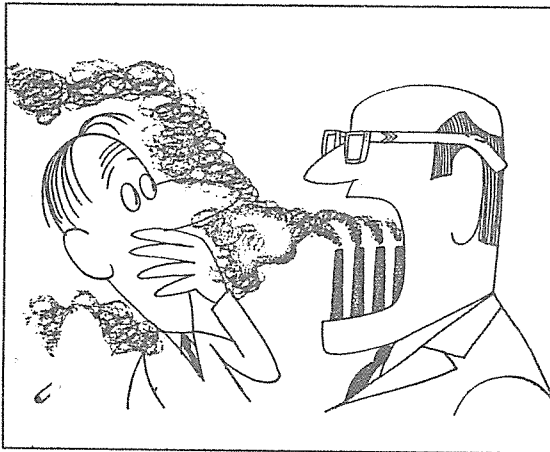
全般的으로는 비록 不確實한 點이 아직 存在하고 있으나, 環境問題에 대한 姿勢가 뚜렷이 確立되고 있음이 여러 論文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一例를 들어, 우선 環境政策에 대한 主眼點이 學者들에 따라 제각기 不確實한 面을 內包하고 있는 點이다. 어떤 學者들(A)은 汚染을 輕減시켜 自然을 保護해야 한다는 點을 強調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B)은 生態學系의 均衡을 定立, 生物界를 保護해야 한다 하고, 또 或者들(C)은 人間의 最適生活 維持에 適合한 全般的인 環境造成에 力點을 두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아마 (A)의 主張은 어떤 特定한 公害에 대한 措置만 이루어진다면 滿足스런 均衡을 維持할 수 있다는 데 根拠를 둔 것이겠고, (B)에서는 主로 生物學的 思考에 크게 影響을 받아 地球上의 모든 生物體에 대한 人類의 責任을 強調하고 있다. (C)의 主張을 살펴보면, 綜合計劃에서 類推되는 概念과 類似한 一連의 包括的이고도 強力하고 創意的인 觀念에 主眼點을 두고 있으나, 實際로는 最善의 社會福祉란 무엇인가하는 價值尺度의 完全한 合致가 先行돼야 하는 것이다.

거의 모든 論文들이 環境問題의 經濟的 側面에 關해 論及하지만, 그 質量面이라든가 導出한 結論들이 나라마다 제각기 相異해서 予想했던 關心을 끌지 못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한편 많은 나라에서 未來의 事業計劃을 檢討 採択하고자 할 때 經濟的인 面에 強勢를 두었다. 特히 그러한 原案

을 修正할 때에는 經濟的 側面을 考慮한 提案一例을 들면, 環境政策과 成長政策과의 相關關係라든가 環境概念의 經濟的 價值評價方法 등을 採擇할 뿐이다. 結論的으로 國家는 그러한 經濟的 側面에 더욱 關心을 쏟게되고, 結局에 가서는 그 方面의 知識과 經驗이 너무 不足함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現象은 小數論文이 強調하는 社會學的, 人口學的인 面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직도 環境에 미치는 惡影響을 無視내지 無感覺한 채로 高度의 産業化政策이나 技術革新政策이 繼續 推進되고 있음이 여러 論文에서 指摘, 批判되고 있다. 過去에는 確實히 居住地域과 工業地域의 地域的 特性에 別로 拘碍없이 計劃을 樹立했다. 새로운 商品 生産을 위한 技術開發에 血眼이된 사람들의 眼中에는 環境汚染問題따위는 無視된 채로 工業增産이 推進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投入한 資金과 關心 程度로는 工業廢棄物, 土壤의 効用 따위를 效果의으로 運用하기에는 너무나 微微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러 論文에서 指摘했듯이 工業活動으로 因한 環境破壞는 工業生産의 膨脹에 따라 增大되고 多樣化되는데, 이런 現象은 一國의 經濟發展이나 經濟構造와는 實際的인 關係없이 일어나고 있다.



特殊産業 中에서 鉅業, 金屬工業이나 動力生産部門은 옛날부터 環境을 破壞하면서 그들의 生産에 所關되는 真正한 社會的 損益에는 鈍減했는데, 아직도 公共福利의 觀點에서 볼때, 여전히 非効率的인 生産活動을 持續하고 있다. 이런 環境弊害를 可能的 限 줄이려고 燃料의 質을 向上시킨다든가, 土壤改善技術을 開發하는 등의 여러 가지로 勞力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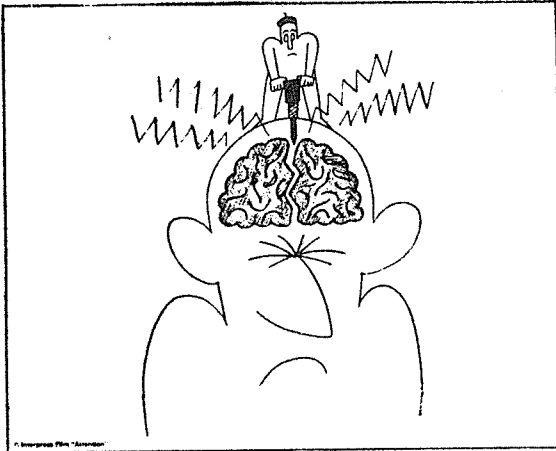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러한 狀況은 如前한 狀態이다. 더우기 요즘은 化學, 精油, 펄프, 시멘트 등의 工場들도 이에 못지 않게 複雜한 問題를 던져주고 있다. 建築材料와 建設事業도 漸次로 環境을 惡化시키는 要因들을 많이 提供하고 있는데, 建設中の 騒音, 먼지, 採石行爲라든가, 때에 따라선 完成된 構造物의 흉한 美觀을 들 수 있다.

農業과 林業에서도 深刻한 問題가 提起되고 있음이 最近에 와서야 論難의 對象이 되고 있는데, 특히 多樣한 効能을 지닌 殺虫劑, 除草劑, 肥料가 人體에는 勿論 生物界 全体에 미치는 影響이라든가, 集約的 大規模農業生産이 風致에 미치는 害가 그것이다. 農業生産을 企業化, 商業化시키려는 強力한 趨勢가 때때로 沒知覺한 生産方式을 指向하게 되어, 生態界에 負擔을 주어 自然의 均衡을 깨뜨리고, 土壤을 損傷시키며, 水資源을 破壞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技術의 進歩로 보다 적은 土地로도 많은 사람들의 農産物需要를 充足시킬 수 있게 되자, 農土가 急激히 減少될 展望이다. 勿論 工業 서비스, 居住地域이 擴大되기 때문이다.

한편, 그렇게 集約的 營農을 하지 않는 土地는 그대로 남겠지만, 그것이 어느 程度까지 市民들의 精神健康에 寄與하게 될지는 疑問이다. 그러나 지금은 非生産的이라 생각되는 林野나 農地라 할지라도, 万若 生産過程에 지금보다 嚴格한 環境保存義務를 課한다거나 옛날과 같은 在來式의 營農, 林産方式의 環境利益이 充分히 効率面에서 計算可能하다면, 그것이 더 生産的일 수가 있는 것이다.

用水의 利用 供給管理에 따르는 環境要素는 여러 生産分野에 密接히 聯關되어 있어서 그 生産性에 미치는 影響은 至大한 바 있다. 使用目的에 따라 제각기 適合해야할 用水의 質이나 確保問題가 여러 國家間에서 深刻한 問題로 擧頭 論議되고 있다. 水利施設網이 複雜하게 서로 얽혀 汚染에 對한 脆弱性을 들어 내게되자, 世界 各國의 專門家들은 合理的이고도 效果的인 水資源의 利用과 保護에 對한 國際協力에 積極 熱誠을 보이게 되었다. 우선 다뉴브江과 발틱海의 例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國際間的 協約이 전혀 없는 狀態인 河川 湖水, 海洋의 汚染防止에 關心을 쏟게 되었다.

또 한가지 固型廢棄物이 急速히 增大됨을 크게 憂慮하지 않을 수 없다. 廢棄物의 收去處理問題에 關한 政府의 責任이 增大되고 있지만, 좀더 必要한 것은 閉鎖性生産回路나 廢棄物을 完全再生,



或은 中性化시키는 方法을 研究 奨勵시키는 일이라는 主張도 있다. 一般的으로 人口의 增加 및 集中現象이 都市 및 그 周邊의 特히 住居, 交通 및 汚染處理 娛樂施設地域의 諸般問題를 惡化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의 解決을 爲해서는 官民의 一致 合心된 努力이 必要하다는 主張도 있다.

### “都市開發”

가장 複雜한 形態의 人工環境을 가진 都會地區는 自然의 純粹함을 온통 文化, 産業活動 및 이에 따른 諸環境構造로 漸次 圧倒 當하면서 많은 國家의 커다란 關心의 對象이 되었다. 特히 大都市에서 더욱 顯著한데, 잘 알려진 都市環境의 否定的 要素들, 一 騒音, 混雜, 汚染, 惡臭, 狹少한 空間, 醜한 外觀 등이 累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南部유럽의 開發途上國家에서 特히 急速히 일어나고 있다. 홀륭한 農地나 林野를 없애가면서 都市가 膨脹하는 것에 앞서, 要는 效果的이고도 合理的인 都市計劃을 發展시켜 지금과 같이 急激하여 걸잡을 수 없는 都市肥大化에 対処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都市周邊에 無許住宅이 難立함에 따라 都市計劃法上 遡及規定을 두어, 돈과 時間이 많이 所要되는 貧民街撤去나 都市再開發에 対処해야한다.

都會地 特히 大都市에서의 都心部는 過度한 環境公害로 말미암은 顯著한 不安이 감돌고 있는 것 같다. 歷史的, 建築的 價值가 있는 建築物이나 構造物을 破壞하여 大衆의 分怒를 사왔다. 道路나 駐車場, 公園, 運動場, 其他 地下構造物의 雜多한 施設에서 보는 바와 같은 技術的 落朽나 서비스 施設의 不足 등을 가장 代表的인 沮害要因으로 들

수 있다.

都心을 조금 벗어나면 옛날 住宅群들이 密集해서 하나의 臨時可變地帶가 形成되는데, 都心으로부터 商街가 함께 뻗어나가서 生活하기에 아주 不快하다. 이러한 地域에서는, 그 環境的인 性格이 微妙하여 都市再開發事業을 大端히 困難하게 만들어 結局 環境回復事業을 주먹구구式 想像力에 依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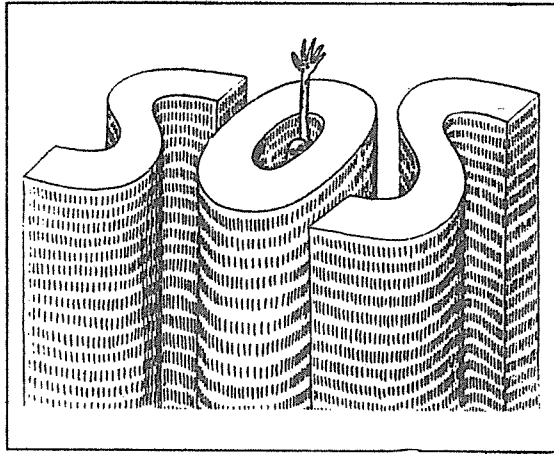
都市外郭에 새로운 住宅地區를 開發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不便한 점도 따른다. 이러한 開發計劃이 때로는 不合理하고 不安全해서 都市機能을 擴大시키지 못하여 都心으로의 適切한 交通手段이 欠如되는 境遇가 있는데, 이는 住宅建設에 相應하는 서비스部門이나 地下構造가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建築物을 大量生産하면 할수록 純粹한 自然環境에 建築物이 미치는 影響範圍가 大範圍해짐이 確然해진다. 그 計劃自体가 技術的으로 成功했다 하더라도 建築生産費의 低廉化로 因해 單調

롭다든가, 美的으로 貧弱 乃至 醜함을 免치 못하는 境遇가 있다. 그러나 한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大都市環境에 嫌惡感을 느끼고 있지만, 限定된 資源과 時間으로 意慾的인 社會를 建設할 수 있다든가, 政策의 優先 順位나 趣向이 時時刻刻으로 變하는 狀況이 어느것을 抉해야할지 망서림을 주게 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産業의 集中이란 오래묵은 問題가 있다. 이것 亦是 集中化된 經濟活動에 따르는 人爲的인 諸要素로 因해 自然環境이 侵害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例이다. 大部分의 이러한 産業地區들은 오랜 歷史와 傳統을 가지고 있지만, 個中에는 過密하게 集中化된 産業地區가 있는 反面에, 産業活動이 斜陽길에 들어서 漸次的인 衰退라는 深刻한 問題를 안고 있는 境遇도 있다. 後者의 境遇는 벨기에나 美國과 같이 工業化가 일찍 일어난 國家에서 그 特殊한 局面을 엿볼 수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衰退해가는 産業地區를 復旧하면서 環境도 改善하려는 綜合的인 治療策을 마련하고 있다

採鉱을 하거나 깊은 掘土作業으로 因하여 地表面을 마치 月世界같이 만들어 놓았고, 또 어떤 工業地區에는 土壤마저 不安定하게 되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러한 곳이 數的으로 增加할 趨勢를 보이고 있다. 多幸스럽게도 몇몇 나라에서는 파헤

쳐진 땅을 메우기 爲한 長期的인 復旧計劃이 緻密하게 推進되어 漸次 그 效果가 나타나고 있다.



環境破壞問題 以外에도 곳에 따라서는 産業沈滯의 惡循環을 되풀이 함에 따라 더 좋은 環境을 찾아 移動한다든가, 다른 職業을 挾할 수도 없는 最惡의 狀態에 빠지기도 한다. 또 産業의 分野에 따라서는 그 立地條件을 自然資源 可得性보다도 勞動力 可得性에 두어, 特殊都會地의 높은 住居, 教育 水準이나 余暇를 그들의 經營技術이나 熟練된 勞動力 充當에 利用하는 境遇도 볼 수 있다. 이러한 狀況 變動으로 말미암아 어느 地域의 經濟的 繁榮을 約束하는 決定的 要素로서 그 地域의 環境條件을 들게 되었다. 結果的으로 開發途上 地域이 良質의 勞動力을 確保하기 爲해서는, 環境改善을 重要地域政策의 하나로 삼는 國家도 생기게 되었다.

高度로 都市化된 地域과 훌륭한 自然的 價值를 지닌 地域사이에는 農村地域이 넓게 자리잡고 있는데, 그 中 많은 農村들이 衰退해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편으로는 過度한 農地利用에 依해, 또 한편으로는 貧弱한 施設로 因해 發生되는 環境問題가 主要한 難題인 것이다. 土質의 破弊, 水利施設의 偏在, 動植物群의 減滅現象, 植物帶의 被害, 林野의 減少 많은 動植物科의 滅種現象等等 이러한 모든 自然環境 阻害要因들은 地下埋設物이나 施設物들이 粗惡해감에 따라 그 振幅을 크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地域에 觀光對象이나 農產物 所出이 減少함에 따라 離農現象이 생기는 것은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 肥沃한 農土를 他目的으로

誤用, 環境弊害를 입고는 다시 環境保存에 눈을 돌려 그린벨트를 造成한다든가, 土地를 浸蝕으로부터 保護한다든가 하는 國家도 있다.

觀光地域이나 環境保存地域도 또 다른 問題性을 안고 있는데, 遺蹟地의 境遇 遺蹟自體의 保存도 重要하지만 그 周邊環境도 保存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經濟的 觀點에서 볼때 效率的인 空間利用이 안되기 때문에 都市化가 高度로 發達된 國家에서는 이러한 自然保存地域이 山間地方이든, 海辺이든, 林野地方이든 가리지 않고 空間效率을 極大化해야한다는 壓力이 커지게 된다. 結局, 이런 地域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걸잡을 수 없이 人爲的인 環境要因들이 增加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安定된 生態學的 均衡의 維持가 困難하게 되고, 環境保存과 合당한 經濟的, 社會的 要求充足 間에 合理的인 均衡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要는 後孫들을 爲한 責任意識을 깊이 自覺하고, 自然環境의 有機的 關係를 考慮하여 觀光地를 適切히 選定하여 效率的으로 開發하면서 徹底히 保存하는 것만이 環境均衡이 維持될 수 있는 길이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未來의 觀光需要와 環境保存과의 滿足스런 調和를 줄 수 있는 大單位開發이 着手되었다. 이러한 事業이 곧 一連의 環境對應 措置 가운데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다.